

복권(lottery)의 어원은 이탈리아어 'lotto' (행운)에서 유래되었다고 전해진다. 그 기원은 로마의 초대황제인 아우구스투스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당시 황제가 연회에 참석한 귀족들에게 참가비를 걷은 뒤 그 영수증을 복권으로 삼아 추첨해 상품을 내리는 행사가 일반화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복권의 기원으로 인정되고 있다. 쉽게 말해 여러 사람에게 돈을 걷어 한 사람 또는 소수에게 대박을 터뜨려주는 것이 바로 복권의 속성이다. 사람들은 이러한 복권의 속성에 환호하며 누구나 한번쯤 달콤한 환상속에서 복권을 구입하게 된다.



복자 세상보기

송 일 호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인생역전의 꿈, 짜릿해?

라 누군가 행운의 주인공이 되어 우리 앞에 실제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행운의 주인공들의 인생은 그 순간부터 바뀌기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 순간부터 평범하던 인생이 오히려 불행한 나락으로 추락하는 인생역전을 맞보게 된다.

얼마 전에 신문 지상에 보도되었듯이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던 남녀가 로또복권에 1등으로 당첨된 뒤 여자가 혼자만의 독식을 위해 잠적해버리고 남자는 자기 몫을 찾기 위해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두 사람이 이 세상

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서로 만나 인연을 맺을 확률은 분명히 로또복권에 당첨될 확률보다도 적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중함 인연을 돈 때문에 저버리는 어리석음을 세상 사람들은 별로 질책하지 않는 분위기인 것 같다. 엄청난 돈의 액수가 가져다 줄 인생역전에 대한 시나리오가 머릿속을 맴돌기 때문에 종적을 감춘 여자나 소송을 건 남자를 이해할 수도 있다는 눈치인 것 같다.

그런데 아쉽게도 복권에 당첨되어 종전보다 행복해졌다는 사람보다 오히려 불행해졌다는 사람이 많다는 통계가 있으니 인간사 정말 '새옹지

마'라 할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오히려 그 많은 재산을 탕진하고 파산신청을 한사람이 있는가하면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러나 복권의 전액 또는 일부를 사회에 기증한 사람의 경우 복권당첨전과 비슷하거나 행복해졌다고 한다. 과학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이 불가사의한 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의 행복은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평범한 진리가 아닐까. 행운으로 얻어진 재물을 자기의 것만으로 지키려는 욕심이 결국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이웃을 위해 마음을 열고 자신의 행운을 나누는 사람은 행복해졌다는 동화속에 나오는 평범한 이야기가 아닌가.

달마의 관심론(觀心論)에 의하면 무명인의 마음에는 팔만사천의 번뇌와 정욕이 있는데 그 모두는 삼독(三毒)이 근원이고 삼독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마음을 잘 거두어 그릇되고 악한 것을 버리고 삼독으로부터 비롯된 삼계와 욕도를 벗어나게 되는데 이를 해탈이라 하였다. 동화속의 이야기나 달마의 관심론에 나오는 말씀이나 어리석고 부추한 불자에게는 같은 얘기처럼 들린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복지지원의 준비가 거의 없는 고령화 사회에서 사람들은 당연히 노후에 대한 깊은 불안감을 갖게 된다. 지금의 한국사회가 바로 그렇다.

무소유와 두타행을 최고의 수행 덕목으로 삼는 스님들의 경우 노후의 경제 문제 때문이라도 더욱 심각한 입장이 될 수 밖에 없다.

몇 년 전 한 조사에서 노후 문제를 걱정하는 스님이 69.4%에 이르렀는데 이는 같은 시기 일반인들의 45%보다 높은 수치다. 사찰 주지직 등 종단 내 한계성을 지닌 소임을 갖지 못한 대부분 스님들이 어떻게 상자를 둘 수 있으며 무슨 경제적 여유로 노후를 위한 저축을 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고 종단 차원에서 이들의 노후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

이미 출가해 그동안 깊은 인연을 맺어두지 못했던 속가에서 그들을 반길 리도 없다. 갈 곳 없는 노스님들 가운데 일반 양로원을 찾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 보면 스님들의 노후복지는 실로 화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비구니스님들의 '노후 걱정'

조계종 총무원장 직속의 사회복지재단이 이미 설립돼 있고 국교보조로 교구본사 중심의 노인 요양시설을 위한 준비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해인사 자비원 등 몇 곳 복지시설도 있다.

하지만 이들은 노인복지차원에서 아직은 걸음마 단계며 스님, 특히 승가의 성차별로 더 대책이 없는 비구니 스님들을 위한 배려는 전무한 상태다.

동국대 행정대학원 김미영씨가 최근 발표한 '조계종 비구니 승려의 노인 복지에 관한 연구'를 보면 '노후에 편히 쉬면서 열반에 들 때까지 조용히 정진 할 수 있는 소박한 공간이면 족하다'는 것이 이들 비구니스님들의 바람이다. 그야말로 무소유를 실천하는 스님들의 소박한 바람이 아니겠는가. 세속의 실버시설에 비해 적은 예산으로도 가능할 것이다.

승보관 정신적 차원의 진정한 권위로 유지된다. 갈 곳 없는 노스님들의 방황은 그런 정신적 차원의 진정한 권위를 훼손시켜 교단차원의 권위마저 흔들게 할 것이다.

스님들의 불안 없는 노후보장이야말로 승보의 정신적 권위를 지켜줄 수 있다. 이 문제야말로 종단이 앞장서야 한다. 종단차원의 적극적 관심과 대책을 기다린다. ■김경자(칼럼니스트)



이렇게 들었다 우리땅과 역사

지혜 있는 사람의 행동은 쌀로 밥을 만들고 지혜 없는 사람의 행동은 모래로 밥을 만든다. <발심수행장>

한반도를 둘러싼 일본과 중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 우기는 일본의 작태야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지만, 요즘 들어 부쩍 자주 독도 관련 '이벤트'를 벌이며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

또 세계의 각종 지도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바꿔 표기하도록 하는 개가(?)를 울리며 기세가 등등하다.

중국 또한 몇 년 전부터 시작한 동북공정을 통해 고려사를 중국사로 편입하기 위한 근거를 차근차근 마련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국의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고구려사를 한국사에서 삭제해 우리의 신경을 건드리기도 하고 일본해·다케시마를 표기한 지도를 찍어 내며 한일 간의 갈등 현안에서 은근히 일본의 편을 들어주는 듯한 인상도 풍기고 있다.

중국과는 고구려사를 일본과는 독도를 두고 대치중인 한국을 고립시키며, 중국과 일본이 연합 전선을 형성해 한국에 공동 대응하는 형국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런 국면에서 외교력은 매우 중요하다. 전쟁을 피하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힘은 외교력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의 외교력을 믿어도 될지는 의문이다.

993년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와 고구려 옛 땅이 자국의 것이라 주장한 거란의 정주 소손녕에 맞서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했음을 당당히 밝히고 설득에 성공, 강동6주를 되찾은 서희의 역랑까지 바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중국과 왜의 틀바구니에서 지켜낸 우리 역사, 우리 영토를 논든 개 강탈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은 없어야겠다.

■박익순(취재부 기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뇌사상태'에서 벗어나길

'산소호흡기를 더 뇌사상태에 빠진 식물인간' 나는 오늘날의 한국불교 현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대표적인 예가 사회지도자급 인사중에는 불자가 극소수라는 현실이다.

정부 각료 중 한 명의 불교신자도 갖지 못한 현실, 방송 연예계에서 자신의 종교가 불교임을 내세우는 순간부터 불이(?)를 감수해야 하고, 군장성들로부터 주요 지휘관 대다수가 기독교 신자로 구성되어 버렸다.

오늘날의 한국불교가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우선 한국불교에는 노동의 가치를 숭상하는 풍토가 없다. 탁발을 통한 무소유의 실천으로 수행자의 본분을 삼는 것은 시대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 노동을 통한 자립경제로서 한국불교를 재구성하고 민중과 역사앞에 다가서야 한다. 그럼에도 한국불교는 신자들의 주머니만 쳐다볼 뿐 인간 재창조의 방법이기도 한 노동의 가치를 한반도 제대로 평가해줄 수 없었다.

또 한가지, 역사발전엔 무임승차하는 불교로는 곤란하다. 사회현실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무저항 비폭력의 방법으로 구현하는 한편 가슴속에 국가 사회의 고민을 담아야 한다. 그 고민과 하나되는 수행상의 참구회화가 개인의 해탈을 현실하게 하고 상식과 원칙에 입각한 바야의 눈을 가질 수 있게 한다. 나아가 다

양한 사회의 목소리를 화해와 상생의 결과로 회향케 하는 불교의 대중적 자비를 실현해야 한다.

노동과 열정, 조국이 없는 불교의 무던 현실감각을 깨우치고, 진실로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근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한 물건도 남아 있지 않은 자성 정진의 본래면목을 생활 속에서 증득해갈 때, 한국 불교는 뇌사상태의 식물인간에서 벗어나 사회적 역할을 다하리라 생각한다.

보덕 스님(안성 칠장사)

큰절에 스님이 없는 이유는?

요즘 일부 교구본사를 보면 큰스님은 안계시고 소임 스님과 사미니(승 등) 소수의 인원으로 살고 있는 곳이 있다. 큰스님이라 불리는 스님들이 큰절을 남겨주지 않고 자로 나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암'이 큰절보다 신도가 많은 곳도 적지 않다. 큰스님들은 암자에 주석하고 계시니, 제자 없고 돈 없는 노스님들의 사정을 헤아릴 수 없는 것 같다.

함께 살고 함께 수행한다는 미덕은 옛말이 되어버린 것 같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불자들은 좀처럼 이해하기 힘들다. 왜 큰절에 노스님들이 주석할 공간이 없는 것인지, 많은 대중이 모여 살아야 할 곳에 사미만 많은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일부 노스님들이 갈 곳이 없어 일반 양로원에 들어가

는 경우가 더러 있다. 암자를 마련하지 못한 무능(?) 때문이라면 현 한국불교의 현실이 개탄스럽기까지 하다. 노스님들은 어디로 가야한다는 말인가.

교구본사는 스님들을 재교육하고 수행할 공간을 내어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큰스님들은 이런 일을 행해야 할 의무를 지닌 분들이다. 왜 대를 알지못하여 나가려고 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가. 참으로 답답한 현실이다.

문수(붓다뉴스)

도롱뇽도 중생이다

불교계가 천성산 문제에 너무나 소극적이다. 불자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럽다. 소극적인 이유는 아마 1심 재판에서 졌으니 끝났다는 보는 것 같다. 그러나 나는 1심에서 진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직도 2심이 남아 있고, 또 대법원이 남아있다. 천성산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설령 악연일지라도 인연이라 그렇게 되었으리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환경에 대한 불교계의 무관심에 문제의 본질이 숨어 있다. 그동안 불교계가 보여준 모습은 너무나 실망스러운 면이 많다. 환경 문제가 있어서는 특히 그렇다. 북한산이 대표적이고, 다른 곳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법회 때마다 외는 '중생무변 서원도'는 무엇이란 말인가. 도롱뇽도 중생이다. 시마(붓다뉴스)

'연대' 민명

심민섭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2004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기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25기생을 모집함

1년 교과목	·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무진장스님(본대학학장) · 최봉수(동국대교수) · 주명철(동국대교수)
	· 불교성당론 ·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최종석(금강대교수) · 박 중(동산불교대교수) · 정병조(동국대교수)
2년 교과목	· 한국불교사 · 유식사상 · 정토사상	· 김상현(동국대교수) · 김성영(승가대교수) · 표주스님(동국대교수) · 차차석(동국대교수)
	· 법화사상 · 반야사상 · 화엄사상	· 암도스님(천포교원장) · 권기중(동국대교수) · 정연스님(승가대교수) · 보각스님(승가대교수)
	· 불교사회복지론 · 불교학개론 · 선사상	· 김호귀(동국대교수) · 윤열수(문화재단연구원) · 박 중(동산불교대교수)
	· 불교미술학 · 불교음악학 · 불교장례학	· 종석스님(승가대교수) · 활안스님(금강선원총재) · 최일범(진각대교수)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고
· 불교학과(200명) (영남·주원·동인) (100명) 60명(50명) · 다도학과(50명) · 불교미술학과(30명) · 불교문화학과(50명) · 불교장례학과(50명)	불교를 적극 신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경합판사진 3매	[불교학과] 2004년 6월 20일~ 2004년 7월 31일 입학금 20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영구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주간반)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다도반)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미술반)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문화반)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불교장례반)	정시반은 지방거주자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

4. 입학 일시 불교학과 : 2004년 8월 7일 (토) 오후 5시 (동산불교회관)
불교한문학과·다도학과·불교미술학과·불교장례학과 : 2004년 9월 7, 8, 9일 개강

5. 원서교부처
본대학 사무국 Tel. 02) 732-1206~8 Fax. 732-1207 (우) 110-140 서울 중로구 수송동 46-20 http://www.dongsanbud.net
· 서울 : 보련각 (조계사앞) 02) 733-0333 · 부산 : 부다가야서점 051) 865-4383 · 대구 : 삼영불교서점 053) 425-4097
· 대전 : 보문서점 042) 257-0161 · 광주 : 불일서점 062) 232-7542 · 제주 : 예전 수비리 살터 064) 743-4184
* 특선시랑 : 동국대 불교대학 입학 추천 · 상기 과정을 졸업한 자는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 고시를 거쳐 연회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불교학과, 한문학과)



시설물 유지관리 전문건설업 등록업체

古新堂 활성생활터

활성생활터란? 왕토와 천연목재 추출 섬유 및 물만을 사용하여 제조된 활성생활터 반죽은 시공 후 자연건조공정을 거치면 왕토의 복층 구조에 존재하던 수분이 증발하면서 왕토 원래의 기능성을 완전히 회복한다. 활성생활터 반죽은 적정 적력(약 100kg)의 왕토 반죽으로서 시공성이 매우 용이하며 미려한 표면과 적절한 구조강도를 갖춘 실내적용 특수내장재이다.

활성생활터의 기능
원칙외선 방출, 세포조직을 활성화하여 노화방지, 습도 조절 능력이 탁월하다. (동절기 습도 능력 탁월)
신진대사 촉진, 민성피로 등 성인병 예방에 효과, 천연소재를 이용한 활성생활터는 탈취능력이 탁월

왕토가 좋은 점으로서 또한 탈취성을 줄 수 있는데, 시멘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탈취력으로 실내공간의 악취 등을 없애주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본 제품의 염도(나염)에 대한 탈취능력은 초기농도 179ppm에서 120분 경과후 10ppm까지 저감시켜 준다.

이런 분들에게 활성생활터 제품을...
· 어린이 아토피성 피부염 · 수험생의 수면부족 및 체력유지 · 두통환자 · 노약자, 산모, 알레르기 환자 · 숙취감 해소

활성생활터의 효능
·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 항균효과 · 항균·방충 및 냄새 제거 효과
· 원칙외선에 의한 열역순환 촉진(바닥재) · 습도조절 및 단열보온 기능 · 유해전자파 차단

제품 성상 및 시공방법
· 왕토, 나무 및 물을 주성분으로 제조된 친환경 주거환경 개선 내장재
· 우수한 탈취 능력, 습도조절능력, 보온, 단열, 방충능력 및 원칙외선 방출 능력이 있는 제품
· 적정 점도의 반죽 상태로 시공이 편리하고 특히 건조 후 표면 갈라짐이 없는 제품
· 용기의 비닐을 제거한 후 교반기를 사용하여 교반, 이때 약간의 물을 첨가하여 점도 조절 가능
· 2~3mm 두께로 초벌 미장 시공 · 2~3일 자연 통풍 건조 · 충분히 건조 후 장판 및 도배

활성생활터시공
· 염색된 생(生)왕토에 나무에서 얻어진 자연성분과 순수한 물만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천연 건축용 내장 마감재
· 갈라져 쉽게 떨어져 시공이 불가능하였던 왕토, 이제는 도배보다 쉽고 빠르게 특별한 기술 없이도 사용가능
· 콘크리트, 석고보드, 합판 등 구조재 종류와 관계없이 바닥 벽체 천정에 미장 혹은 도장(칠)가능

칠칠工營 合資會社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냄새제거 시스템시공
세계최초 '通風 되며 防水' 시공 · 시설물 유지관리 전문건설업 등록업체
대전시 중구 대흥동 455-2 한비B/D 4층 대표전화 042)2427-007 / 011-9413-6000 / 팩스 042)2427-009
http://www.ks7700.co.kr E-mail: ceo@ks7700.co.kr